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7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7.(화)	담당부서	항공방위산업팀
담당과장	송용식 팀장(044-203-4305)	담 당 자	허은정 사무관(044-203-4309)

민군기술협력으로 국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

- 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(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) 개최 -
- 민군기술협력 우수기업, 「LIG넥스원」 현장방문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12월 7일(화)**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첨단기술 성과물들을 창출해 온 LIG넥스원에서 **제1회 「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」를 개최**하였다고 밝혔다.

<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 및 LIG넥스원 현장방문 개요>

○ **(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)** '21.12.7일(화) 13:00~14:25, LIG넥스원 판교하우스
- **(공동의장)**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, R&D전략기획단 단장
- **(정부위원)** 산업부 산업정책실장,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,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, 기재부 예산실장, 방사청 차장, 해수부 해양정책실장, 국토부 항공정책실장
- **(민간전문가)** 최형기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,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, 안효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, 홍석윤 서울대 교수, 이상엽 KAIST 교수, 김재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,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 원장

* 해수부·국토부 정부위원 및 민간전문가는 '22년초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식 위원화

○ **(LIG넥스원 현장방문)** 21.12.7일(화) 14:25~14:50, LIG넥스원 홍보관
- LIG넥스원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전시물 관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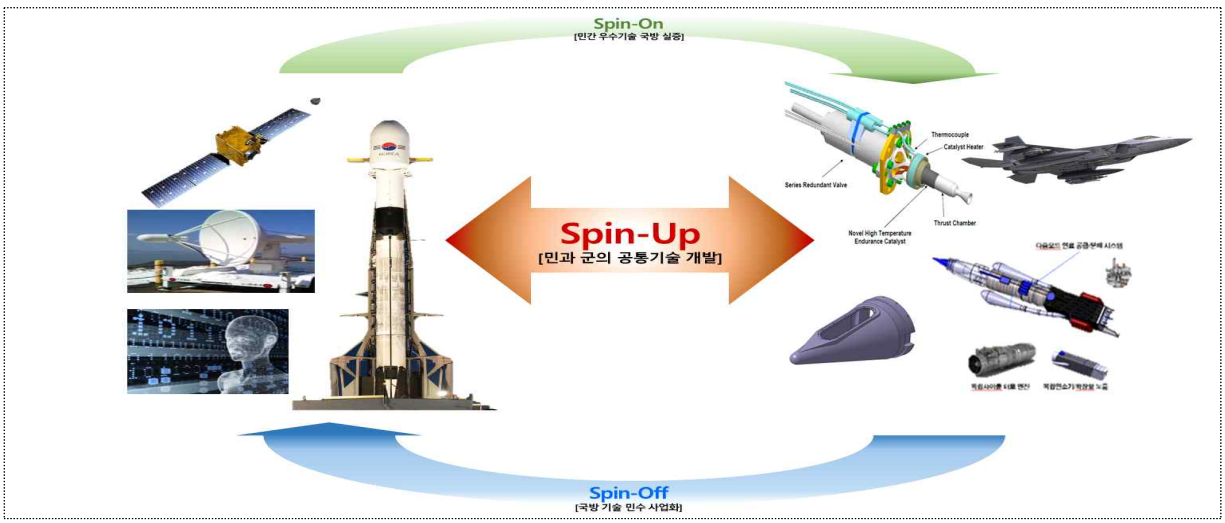
□ 「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」는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신설된 범부처 국**방과학기술위원회(위원장: 국방부장관)를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 중** 하나로써,

○ **박진규 산업부 1차관과 나경환 R&D 전략기획단장을 공동위원장**으로 관계부처 실장급과 산·학·연의 민간전문가가 참여, 위성·발사체 등 **민군협력**으로 **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** 예정이다.

□ 오늘 제1회 회의에서는 △민군 **상호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술협력 체계 강화방안**, △(민→군 제안) **자율주행 및 로봇기술 민군겸용 협력 방안**, △(군→민 제안) **국방분야 센싱기반 예지정비 기술개발**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.

○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인 **민군협력진흥원**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, **민군 상호기술이전 활성화 체계를 강화**키로 하였다.

- 위성, 발사체 등 **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분야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**하고 **민간 우수 R&D의 국방실증 전주기체계를 제도화**하며, **국방기술 공개범위 확대 및 공동활용 방안**도 추진할 예정이다.



[위성/발사체 민군기술협력 개념도]

○ **산업통상자원 R&D 전략기획단**은 다양한 제조 산업기술 중 육·해·공의 무기 및 비무기 체계에 접목 가능한 **“자율주행”** 및 **“로봇”** 분야 **혁신기술을 제안**했다.

- 금번 회의에서는 험지나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빠른 자율주행이 가능한 **“초고난도 자율주행 인지센서 기술”**과 시스템 이상 대비 및 고위험 상황 극복을 위한 **“자율주행 다중 안전설계 기술”**,

- 또한 위험작업 보조 및 대체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팔 말단에 부착되는 **"그리퍼 및 로봇손의 조작 기술"**과 **"원격제어기반 양팔 로봇 기술"**을 소개하였다.



[자율주행 험지 수송, 로봇손을 활용한 위험작업 대체 예시]

○ **국방부**는 국방 군수분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**센싱 기반 예지정비** 및 **스마트 정비기술 융합 플랫폼 구축 방향**을 소개하고,

- 센싱기술, 네트워크 구성, 데이터 관리·분석 기술 등 **민간의 우수한 기술들이 결집**되어 **국방의 첨단화, 과학화가 추진**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의 공동기획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 등의 협력을 요청**했다.



[국방 군수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(안)]

□ LIG넥스원은 그간 **민군기술협력사업**을 통해 **연안 감시정찰 무인 수상정,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,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개발** 등을 추진해 왔고,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 등을 통해 **군 적용을 타진 중**이다.

연안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해검-3 (실용화연계)	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(Spin-on)	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 (Spin-on)
24시간 연안경계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무인경비정 설계/제작 및 시범운용 	직충돌형 소형 드론의 HW, SW 설계 및 검증기술  * 적용체계 : 소형 정찰/타격 복합형 드론	발사체계와 유도탄 간 신호 및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배꼽케이블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대체 
• 개발기간 : 19.6~21.6 • 출연예산 : 53억	• 개발기간 : 18.10~20.8 • 출연예산 : 13억/매출 : 43.8억	• 개발기간 : 19.12~22.2 • 출연예산 : 15.0억

□ 산업부는 민군기술협력분과위 운영을 통해 첨단기술분야의 혁신기업과 군·학·연 전문가를 결집하여 민군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형과제들을 발굴·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.

○ **나경환 민간위원장**은 “우리나라의 다양한 제조업 특성상 산업기술은 육·해·공의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에서 필요한 기술과 유사성이 높다”며, “**제조산업 혁신기술**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**국방분야 혁신을 제고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○ **박진규 산업부 1차관**은 “미래전장을 대비하고 G2간의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블록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**민군기술협력을 통한 미래핵심 기술확보** 및 **발 빠른 상용화**가 중요하다”며, “분과위를 통해 **민군기술협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**에 앞장서겠다”고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허은정 사무관(☎ 044-203-43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